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양식

Life Style and Dietary Pattern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부교수 임 정 빈

교 수 서 병 숙

교 수 이 효 지

교 수 장 유 경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Home Economics

Jeong-Bin Im, Byong-Sook Seo,

Hyo-gee Lee, Yu-Kyung Chang

目 次

I. 序 論

II. 關聯研究考察

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2. 식생활양식의 관련연구

III. 研究方法

1. 조사도구의 작성
2. 조사대상

3. 분석방법

IV. 結果 및 解析

1.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생활양식

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classify the life styles of urban housewives, to see their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demorgaphic variables, and also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dietary patterns.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by a questionsire about life style, demographic variables and dietary pattern. The selected samples were 475 housewiv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Duncan test, X-test and F-test.

Life style is classified into 4 types:temporary enjoying type, passive irrational type, realistic conservative type, actual progressive type.

The housewives who are in temporary enjoying type usually do randomly and don't think seriously something. And they have tendency to enjoy themselves. Therefore they don't have any plan for dietary behavior.

The passive irrational type's housewives have no consistency in their life and they do

everything temporarily. The housewives who are in this type have relatively low income, low level of education and they are high in age.

The people who are in realistic conservative type act reasonably and elastically everything. They use convenient food very much, because they are willing to save time to make them.

The housewives who are included in actual progressive type are well organized and planned in dietary behavior than others, when they dine out, they eat with family together in general, they usually use only a kind of western sauces and convenient food. They are relatively young, highly educated, and they are high income group.

In conclusion realistic conservative type and actual progressive type are both relatively desirable type in dietary behavior, but in temporary enjoying type and passive irrational type, there have to be some guide and education about managing family resources and dietary behavior.

I. 序 論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등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가족기능, 가족구조 등의 가정생활의 내용과 양식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화시켰다. 급성장한 경제적 환경은 가정생활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 등의 변화로 가정관리 행동에도 커다란 변화가 와서 식생활양식도 달라져 가고있다. 실제로 歐美 선진국이 200~300년에 걸쳐서 이룩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불과 25~30년에 이룩된 셈이다.

주부는 가족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섭취할 식품을 계획, 구입, 조리하는 등 가족의 식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의 단위로 볼 때 매우 첨단적 思考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아직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의식과 생활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여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현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규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가정학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식생활은 가족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정생활 관리에 있어 식생활은 금전과 시간소비의 비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각 가정에서 취하게 되는 식품의 종류, 식사방법, 식품구매, 외식 등의 식생활 양식은 각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가정외적 환경, 즉 시장구조 등과 같은 지역사회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각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식생활 양식은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관리와 문화, 가치, 표준을 나타내는 식생활 양식이 현대 도시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각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첫째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가정관리 행동과 식생활 양식을 파악하고, 둘째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암시한 올바른 식생활을 계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관련연구고찰

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라이프스타일은 사회계층, 문화, 준거집단, 가족 등의 환경적 변수와 가치, 개성, 자아개념의 심리적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Engel, Blackwell and

Kollat, 1978; Levy, 1963).

라이프스타일의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태도 및 인생관이라 하고(林田昭治 外, 1979), 그외 가치의식, 흥미, 관심, 현재적(顯在的)행동과의 통합된 System 이라고도 한다(Berkman & Gilson, 1978; 오상락, 1981). 또한 Cross, Crandall, Knall(1981)은 라이프스타일을 家族의 생활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점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개념을 개인 혹은 집단의 통합기능으로 보고 라이프스타일은 독자성, 창조성, 가치의식, 목표지향성이라 하며 각각의 기호, 선호, 또는 그에 상응할 수 있게 선택함으로써 자기 생활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개인 및 사회의 여러계층에 적용되며 분석의 목적이나 관심의 수준에 따라 개인, 가족, 가계, 집단, 지역, 사회 등 어느 것에서도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하여 연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인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된 분야는 소비자행동과 마케팅 분야로 196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 가정학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이란 사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 사이코그래픽스라 함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중점을 두는 개념인 반면,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라이프스타일이란 소비자의 정신적, 감정적 스타일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스타일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Wells, 1974, p.319).

2. 라이프스타일의 관련 연구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Robert와 Wortzel(1979)이 여성의 식품 구매행동에 있어서의 라이프 스타일 결정요인을 살펴본 것이 있다. 한귀석(1983)은 도시주부를 5 집

단으로 집단화하고 각 집단과 환경변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집단별 화장품 구매행동을 조사했으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지 못하였다. 한인자(1983)는 라이프스타일과 육류구매행동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라이프스타일과 육류구매와는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은 구매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유형과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양진(1982)은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심재엽(1983)은 대학생의, 강이주(1983)는 청소년의, 그리고 임정빈·박선영(1989)은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그런데, 위의 한귀석(1983)과 유양진(1982), 심재엽(1983)과 강이주(1983)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함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관심, 태도, 의견등을 요인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집단화하는 데에 그쳤으므로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이차옥(1983)과, 김경미(1986) 그리고 임정빈·임혜경(1988)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화의 기초단계로 먼저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작성한 여러 문항들의 대표적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후 조사대상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클러스터 분석을 하여 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 하였다.

이 가운데 이차옥(1983), 김경미(1986)·임정빈 등(1988)의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5~7 유형으로 분류 하였는데 그들의 유형에서 내용상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상호 유사한 유형을 보면, 생활 자세에 따라 소극형, 안정에 대한 성향에 따라 안정형, 경제행동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검약형, 주부자신의 생활에 따라 자기 개발형, 사회변화에 대한 개방성에 따라 진보형으로 묶여질 수 있다.

이상에서 볼때 라이프스타일이란 좀더 구체화된 개념으로 본다면 개인이나 가정의 삶을 영위하는데

소비하는 시간과 돈의 사용패턴이며 그들의 활동, 흥미, 의견 등에 의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생활양식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Wells, 1974).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이 있는 변수는 주부의 연령, 학력, 가정의 소득, 자녀수, 남편의 직업, 주택형태(김경미, 1986; 임정빈 등, 1988)와 결혼지속 연수(김경미, 1986), 주부의 주성장지, 종교(임정빈 등, 1988) 등이다.

이차옥(1983)과 김경미(1986)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관련이 많은 변수는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결혼지속연수 등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교육과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고 남편의 직업위세가 높은 경우에는 안정형에 속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소극 침체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주부들의 생활유형구분은 교육 및 소득수준, 남편의 직업 등이 중요한 영향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식생활 양식의 개념

식생활 양식은 한 민족이 서로 같은 환경과 같은 역사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안녕과 풍요를 이루기 위하여 자연적 환경자원을 활용하고 사회환경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시대에 따라 그 양식이 변화하면서도 계승을 거듭하여 온 생활 문화 유형의 하나이다(윤서석, 1982). 식생활 양식의 내용에는 주식과 부식의 종류, 식품의 조리 가공방법, 조리할 때 사용되는 조미료, 음식을 담는 식기, 식사예절 등이 포함된다.

사회 구조가 개인화, 산업화됨에 따라 식생활 양식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가정의 식사보다는 산업체 급식이나 학교 급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아침 식사보다 저녁 식사를 중시하며 아침, 점심에는 밥 대신 국수, 빵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고 식품 재료의 선택과 구입, 식품 조리 방법 및 저장 방법 등에 따른 변화로 전반적인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식생활 양식의 변화 중 가장 뚜렷한 것은 외식의 증가이다. 외식이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

점의 음식이나 슈퍼마켓에서 사온 도시락을 집에서 먹게 될 경우와 학교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집단 급식을 말한다. 한편 가정에서 만든 음식이나 도시락을 학교나 직장에서 먹게 되면 내식이라고 한다(모수미, 1987). 가족의 식생활이 풍요롭지 못하던 과거에는 외식으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 보완하였으나 오늘날의 외식은 사회생활, 가족단란, 주부의 노동력 감소 등 보다 많은 기능을 갖는 등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식품산업 및 식품 가공 기술의 발달로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때도 편이 식품을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졌다. 편이 식품이란 가열하거나 또는 가열하지 않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식품을 칭하며, 모든 종류의 가공 식품이 이에 포함된다(이서래, 1984).

사회는 핵가족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됨으로써 식품소비구조에 변화가 오게 되었다. 간편한 식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식품산업, 식품서비스산업 등의 식생활산업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특히 가정에서 식생활을 담당하는 주부들의 직장 진출과 사회참여증가, 소비의식과 행동의 변화,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은 주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주면서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식생활은 경제발전과 시장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식품의 개발, 편이식품의 생산, 외식산업의 발달 등에 따라 그 양식이 변화한다. 또한 동서양의 문화교류, 산업사회에서의 생활의 간소화, 개인화, 사회화 등은 종래의 가정내의 식생활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4. 식생활 양식에 관한 관련연구

식생활 양식에 직접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식생활비예산과 식단계획, 식품의 선택 및 구입품목작성, 외식 그리고 편이식품의 이용 등 전반적인 식생활관리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식생활비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가족수가 적은 가정에서

그 비율이 높았고(유영상, 1980),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은 주부는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은 주부보다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지식이 많으므로 식단을 계획하고, 식생활비에산을 세우며, 식품을 구입하려 갈때 구입품목을 작성하는 등 식생활관리가 보다 계획적이었다(김혜경, 1987).

주부들이 생활 목표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으로서 실제로 각 가정의 경제수준은 식품의 선택(김화영 1985, 손경희 1988)과 식품의 구입횟수(유영상 1980) 및 식품의 질과 조리법의 다양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오은숙, 1989). 또한 식품소비구조를 분석한 것을 보면 육류, 과일, 외식 등 식품의 품목별 지출액과 경제수준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김미향, 1988).

주부의 취업이 식생활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취업주부는 전업주부 보다 식사준비시 경제적인 면보다는 시간을 더 중요시하며, 전업주부는 대부분이 식사준비를 자신이 하는 반면 취업주부는 파출부, 시모, 남편의 도움을 받는 빈도가 높았다(김미리, 1984). 따라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식단을 계획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아 취업주부의 식생활 관리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혜경, 1987).

도시 주부들의 외식행동을 보면 외식 횟수는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식하는 이유는 소년층의 경우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청소년 및 여대생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아서, 청년은 간편해서 등이었다. 그러나 도시 주부들의 경우는 특별히 계획해서 외식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식사준비가 번거롭고, 사교적 모임을 위해서 외식하는 경우도 있어 외식은 식생활의 간편화, 사교화, 레저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모수미 1986, 손경희 1988).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조리가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하여 편이 식품이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편이 식품의 소비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윤자 1986, 김미향 1988). 그러나 편이 식품의 이용은 영양이나 가격면에서는 주부들의 호응이 적었다(김혜경, 1987).

식품 공업 및 외식 산업의 발달은 우리의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양식의 폭을 넓혀 주고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상 식생활양식은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생활양식이라고 생각되므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식생활양식을 파악하는 것은 현대가정생활의 식생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III. 研究方法

1. 조사도구의 작성

라이프스타일 조사항목은 AIO(Attitude, Interest, Opinion) 항목을 기준으로하여 의·식·주, 가정관리, 구매행동, 가족, 자녀양육, 자신, 여가활동, 일등 가정생활의 9개 분야에 걸친 문항들을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식생활 패턴에 관련된 조사항목은 식생활관리, 외식, 편이식품 이용, 시식 및 절식(節食) 등의 4개 부분에 걸쳐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8개 문항이 포함되어 조사항목은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 양식에 총 156개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여 '정말 그렇다'의 경우에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1989년 10월 50여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요인적재치가 낮게 나온 문항들을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67개 문항과 식생활 양식에 관한 8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소득수준,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2개교, 대학 1개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학부모인 주부로 하여금 본인이 자기식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구 분	%(N)
주부의 연령(세) (N=457)	20~29	2.8 (13)
	30~39	35.4(162)
	40~49	47.5(217)
	50 이상	14.2 (65)
주부의 학력 N=(451)	중졸이하	16.2 (73)
	고 졸	48.3(218)
	대졸이상	35.5(160)
결혼지속 년수(년) (N=449)	5 이하	2.9 (13)
	5~10	7.5 (34)
	11~15	20.4 (92)
	16~20	26.5(119)
	21~25	25.1(112)
	26~30	11.4 (51)
31 이상	6.1 (36)	
자녀 수(명) (N=457)	1 이하	8.8 (40)
	2~3	74.6(341)
	4~5	14.9 (68)
	6 이상	1.7 (8)
가족형태 (N=457)	핵 가족	69.4(317)
	확대 가족	30.6(140)
주부직업 (N=441)	있 다	35.1(155)
	없 다	50.3(222)
	과거에 가진 경험이 있다	12.0 (53)
	시간제로 일한다	2.5 (11)
남편직업 (N=457)	전문 기술직	16.4 (75)
	행정 관리직	23.0(105)
	사무직	23.6(108)
	판매직	14.4 (66)
	서비스직	6.6 (30)
	생산직	7.6 (35)
기 타	8.3 (38)	
가족수입(십만원) (N=443)	50 이하	11.2 (49)
	51~70	15.3 (68)
	71~110	29.5(131)
	111~130	12.0 (53)
	131~170	16.9 (75)
170이상	15.1 (67)	

(自記式)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1989년 10월 16일 부터 10월 24일 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500부를 배부하고 그중 461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기재등 연구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457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아래표와 같다.

3. 분석방법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 및 클러스터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Test를 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생활 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 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 양식별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²-Test를 하였다.

자료는 KAIST시스템 공학센터의 SAS Package를 사용하여 처리 하였다.

IV. 結果 및 解析

1. 도시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1)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Common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추출 방법은 직각회전 방식 중 하나인 varimax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eigen value가 1.0이상인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의 각각의 문항과 요인적재치는 다음과 같다.

(2)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클러스터 분석

1) 클러스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을 변수를 기준으로 몇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보고자 클러스터 분석을 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은 여러 차원의 공간에 자리잡은 각 응답자들을 서로 가까운 것끼리 모으고 먼 것은 분리되도록 하여, 그 결과 상대적인 몇몇의 클러스터로 묶어내고자 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Ward's method를 이용하였다.

2) 클러스터 수의 결정

〈표 2〉

요인의 특성	문항번호	요인적재치	문항내용
요인 1 향유적 보수성	52	0.3208	취미생활을 위하여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
	49	0.5039	여가생활을 위하여 돈을 지출한다.
	36	0.3460	남편과 아이들이 부익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3	-0.3210	새 상품이 나오면 친구나 이웃보다 먼저 사는 일이 흔하다.
	18	-0.6483	일회용 상품은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므로 많이 사용한다.
	41	0.3222	자녀들은 엄격하게 기르고 있다.
요인 2 진보적 평등성	47	0.5963	사회의 불우한 사람이 많은 것은 어느정도 나의 책임도 있다.
	45	-0.4966	여자아이는 주부로서의 훈련을, 남자아이는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요인 3 자주성	38	-0.4882	여성에게 최고의 행복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다.
	55	0.5801	일을 여럿이 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해야 능률이 오르고 좋다.
	40	-0.4974	노부모에 대한 책임은 역식 장남에게 있다.
	35	-0.4392	살림에 관한 것을 종종 시댁이나 친정의 어른들께 의논 드린다.
	32	0.2332	연애결혼 보다는 중매결혼이 더 좋다.
	16	-0.5315	화초는 사는 재미보다 기르는 재미로 기른다.
요인 4 실용적 합리성	42	0.4672	내 아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훈육한다.
	58	-0.5023	일을 할때 시간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
	31	0.2962	가족의 단란한 시간을 위해서는 비용을 좀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
요인 5 개방적 적극성	22	0.4670	유명상표의 상품은 비싸기는 하나 질이 좋다.
	6	0.3300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옷을 한두벌 가지고 있다.
	64	0.3529	한달에 한번 정도는 영화, 음악 또는 연극감상을 위해 외출한다.
	65	0.4586	꽃꽂이나 서예같이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10	0.3223	TV, 신문, 잡지등의 패션정보에 관심이 강한 편이다.
	28	0.7852	스포츠는 보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편이 좋다.
	29	0.5238	건강을 위해서는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다.
	2	-0.6589	별식을 만들어 가족을 즐겁게 한다.
	3	-0.3429	명절에는 고유한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4	-0.6074	잡지나 TV에서 나온 새로운 식품이나 요리방법을 한번 해 본다.

요 인 6 자 아 실현성	60	0.3237	가끔 어려운 일이 있다해도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59	0.6804	편안한 생활보다는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노력
	46	0.5387	아이들이 해 보고 싶은 것은 해보도록 허용한다.
	44	0.3098	아이들에게 웃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을 강조한다.
	21	0.4937	자녀들의 의견이 좋은 것이면 받아들여서 시행한다.
	48	0.3967	모임에 나서서 노는 것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67	0.3154	장래를 위해 저축을 꼭 해야 한다.
	63	0.3125	내 집에서 시끄러운 공사를 하게되면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53	0.4242	지역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일하고 있다.

사용된 클러스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클러스터내의 동질성의 정도를 말해주는 통계량인 'RMS STD' 값과 임의로 지정한 클러스터 수 중에서 분석이 용이한 클러스터 수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클러스터를 4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3) 라이프스타일

<표 3> 클러스터 수와 Case 수

분 류	클러스터 수	Case(%)	총 계
3분류	1	142(31.1)	457(100)
	2	170(37.2)	
	3	145(31.7)	
4분류	1	95(20.8)	457(100)
	2	113(24.7)	
	3	120(26.3)	
	4	129(28.2)	
5분류	1	67(14.7)	457(100)
	2	98(21.4)	
	3	111(24.3)	
	4	72(15.8)	
	5	109(23.9)	

註) Duncan Test 결과를 근거로 mean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고려한 것임.

VH: Very High, H: High, L: Low, VL: Very Low

* $p < .01$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출된 6개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이루는 변수들이 클러스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Duncan Test와 ANOVA를 통해 알아 보았다.

<표 4>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클러스터마다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표를 통해 각 클러스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클러스터; 자신의 생활을 즐기며,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고 개발적이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참여하는 생기있고 활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덕성과 융통성이 있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반면 가정적인 면, 실용적 합리성이 결여된 집단이다.

* 제2클러스터; 매우 소극적이고 침체된 양상을 나타내어 사회의식이나 사회활동 그리고 취미생활에 무관심한 동시에 가계운영이 비합리적이고 즉흥적이며 가정생활에도 별로 충실하지 못하다. 즉 안정성이 없고 부정적이고 생활에 생기가 없으며 진보성도 결여된 집단이다.

* 제3클러스터; 자신의 가정 뿐 아니라 이웃과도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은 매우 검약한 편이나 변화나 유행에 덜 민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자기 개인 보다는 가족을 위하며, 융통성이 있고 생기있는 생활을 하는 반면 단순히 향유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제4클러스터; 매우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가정 그리

〈표 4〉 클러스터 별 Factor변수의 차이검증

Factor	Cluster	CL1	CL2	CL3	CL4	F—비
FA1 (향유 보수성)		H	L	VL	H	92.12
FA2 (진보 평등성)		L	—	—	H	103.70
FA3 (자주성)		—	—	L	H	42.66
FA4 (실용 합리성)		L	VL	H	VH	55.12
FA5 (현대 개방성)		H	—	L	VH	26.70
FA6 (자아실현성)		VH	L	H	H	105.14

〈표 5〉 각 Factor에 대한 클러스터 별 평균치

Factor	Cluster	CL1	CL2	CL3	CL4
FA1		4.16	3.74	3.58	4.23
FA2		2.62	3.06	2.89	3.11
FA3		2.87	2.89	2.67	3.40
FA4		3.32	3.11	3.74	3.89
FA5		3.16	2.81	2.97	3.38
FA6		4.03	2.32	3.52	3.57

고 사회 활동에도 충실하다. 가게운영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보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다. 현대적인 감각에 민감하며 긍정적 태도와 융통성이 있고 가정 위주의 안정적이면서도 자주적인 활기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이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연구자들과 몇사람으로 구성된 모임을 갖고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하여 각 클러스터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명명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각 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진보적 활동형이(28.2%)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실용적 안정형(26.

3%), 소극적 비합리형(24.7%), 현대적 향유형(20.8%)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유형은 전체의 응답자의 20% 이상을 이루고 비교적 고르게 분류되었다고 사료된다.

2.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의 관계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1)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연령별로 그 분포를 달리하고 있다.

주부의 연령이 20대인 경우에는 진보적 활동형이 높은 비율(46.2%)을 보였으며, 30대(33.3%), 40대(27.2%)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50대에는 실용적 안정형이 가장 높은 비율(36.1%)을 보여 주어서 청·장년층은 그 성장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생활태

〈표 6〉 각 클러스터 명칭 및 분포

클러스터 번호	라이프스타일 유형	Sample수(%)
1	현대적 향유형	95(20.8)
2	소극적 비합리형	113(24.7)
3	실용적 안정형	120(26.3)
4	진보적 활동형	129(28.2)

도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학력도 중년, 노년층보다 높아 사회적, 개인적인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년층으로 갈수록 현실에 어느정도 만족하면서 안정을 기하려는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형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가족형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핵가족이든, 확대가족이든 4가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보적 활동형에 속한 집단의 결혼지속년수가 가장 짧았으며(16.6년), 반면에 실용적 안정형에 속한 주부의 결혼지속년수가 가장 긴(19.4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정생활주기의 단계에 적용하여 보면, 가정생활주기가 확대기에서

확대후기로 발전해 나아감에 따라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생활태도에서 실질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젊은층의 주부는 진보적 활동형이 많고 중년기 이후의 주부집단이 실용적 안정형에 더 많이 속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4) 자녀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자녀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요인별 자녀수는 거의 같은 수치를 보였는데, 총 평균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1) 학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주부의 학력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은 상당히 큰 유의차가 있었다. 중졸이하와 고졸의 주부는 실용적 안정형에, 대졸이상의 주부는 진보적 활동형에 높은 비

〈표 7-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1)

변 인	구 분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성	실용적 안정형	진보적 활동형	&	X ²
주부의 연령	20~29	23.1	23.1	7.7	46.2	100	14.25
	30~39	18.5	24.1	24.1	33.3		
	40~49	22.6	23.5	26.7	27.2		
	50~59	19.7	31.1	36.1	13.1		
가족형태	핵 가족	20.8	23.0	27.4	28.7	100	2.61
	확대가족	22.2	27.8	22.2	27.8		

〈표 7-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2)

변 인	요 인	평 균	총 평균	F
결혼지속년수(년)	1	18.8	18.8	3.79*
	2	17.5		
	3	19.4		
	4	16.6		
자녀 수(명)	1	2.8	2.7	3.42*
	2	2.6		
	3	2.9		
	4	2.5		

율을 보였다. 즉,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 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며, 학력이 낮을수록 실용적 안정형, 소극적 비합리형의 경향을 띠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로써, 학력이 낮은 집단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고 적극적이며 실험적인 특성을 갖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소득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전체적으로 볼때, 소득이 낮은 집단은 현대적 향유형과 실용적 안정형이 많은데 소득이 낮으면서도 향유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내다 볼때 다소 문제점이라 지적될 수 있다.

대체로 소득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실용적 안정형에, 7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진보적 활동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70만원을 임계치로 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는 현상태를 유지, 안정하는데 주력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즐기고자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주부의 취업 여부는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보적 활동형이, 취업주부나 과거에 취업경험이 있는 주부는 소극적 비합리형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의 취업동기가 자

<표 8>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변 인	구 분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성	실용적 안정형	진보적 활동형	&	X ²
주부의 학력	중 졸	28.8	27.4	34.2	9.6	100	37.79**
	고 졸	24.3	18.8	29.8	27.1		
	대 졸	11.9	31.9	18.1	38.1		
가족의 수입 (십만원)	50	32.7	20.4	32.7	14.3	100	24.83
	51~70	29.4	14.7	35.3	20.6		
	71~110	19.1	26.7	22.1	32.1		
	111~130	13.2	28.3	24.5	34.0		
	130~170	16.0	30.7	22.7	30.7		
170	14.9	25.4	28.4	31.3			
주부의 직업	있 다	20.0	28.4	26.5	25.2	100	18.14*
	없 다	22.1	18.0	28.8	31.1		
	과거에가진경험이있다	20.8	37.7	11.3	30.2		
	시간제로 일한다	18.2	27.3	45.5	9.1		
남편의 직업	전문기술직	12.0	33.3	24.0	30.7	100	35.54*
	행정관리직	16.2	22.9	22.9	38.1		
	사무 직	26.9	21.3	20.4	31.5		
	판매 직	25.8	24.2	30.3	19.7		
	서비스직	30.0	13.3	36.7	20.0		
	농·축산업	50.0	16.7	33.3	—		
	생산 직	10.3	31.0	44.8	13.8		
	기 타	20.0	40.0	20.0	20.0		

*P<.01

아실현에 있기보다는 가계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여러 연구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주부의 취업종류와 취업 동기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점이다.

4) 남편의 직업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남편의 직업이 행정관리직, 사무직, 전문기술직일 경우에는 거의 진보적 활동형에, 판매 서어비스직, 생산직, 기타는 실용적 안정형과 소극적 비합리성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남편의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적극적이며 진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며, 반대로 낮을 경우는 소극적이며 실용주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직업과 소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생활 양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양식을 식생활 관리, 외식, 편이식품이용, 시식 및 절식으로 보고 그 각각에 대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한다.

(1) 식생활 관리

식생활관리에 식생활비예산, 식단체획, 식품구매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생활관리에 관한 결과를 보면 <표 9>와 같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생활비예산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적활동형의 주부들이 식생활비예산을 세운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42%) 반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부는 실용적 안정형(33.3%)과 소극적 비합리형(31.

<표 9>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식생활 관리

항 목	내 용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형	실용적 안정형	진보적 활동형	%	X ²
식생활 비예산	① 세운다	24.4	18.3	15.3	42.0	100	23.4***
	② 그때 그때 적절히 쓴다	20.1	26.1	29.5	24.3	100	
	③ 세우지 않는다	16.7	31.0	33.3	19.0	100	
예산 계획하 지 않는 이유	① 익숙하지 않아서	15.9	30.4	23.2	30.4	100	18.08*
	② 물가변동이 심해서	30.1	12.3	30.1	27.4	100	
	③ 신경쓰는게 귀찮아서	16.5	30.4	30.4	22.8	100	
	④ 수입의 불균형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하므로	23.3	29.1	33.7	14.0	100	
평균 식생활 비	① 20만원 이하	24.5	24.5	29.8	21.3	100	10.71
	② 21~40만원 이하	22.2	23.7	25.6	28.5	100	
	③ 41만원 이상	16.3	20.7	20.7	42.4	100	
식단 계획	① 계획하여 그대로 실천한다	24.3	13.5	13.5	48.7	100	21.52**
	② 계획하지만 실천하지 못한 다	25.6	23.8	18.9	31.7	100	
	③ 식단체획을 하지 않는다	17.7	27.7	31.2	23.4	100	
식품구 입품목 작성	① 작성한 것만 구입	22.2	23.7	17.0	37.0	100	15.91*
	② 직접가서 사고 싶은 것 구입	24.0	23.3	33.3	19.4	100	
	③ 품목작성해도 추가 삭제 구입	18.2	26.2	27.3	28.3	100	

0%)에서 많았다. 또한 실용적 안정형은 그때그때 적절히 쓴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가장 높았다.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주부들이 신경쓰는 게 귀찮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실용적 안정형과 소극적 비합리형에서 30.4%였고 실용적 안정형의 주부는 수입의 불균형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라고 답한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집단의 주부는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가족의 수입 또한 낮기 때문에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식단계획에 있어서는 진보적 활동형의 주부가 식단을 계획하여 그대로 실천한다고 응답한 경우(48.7%)가 가장 많으며, 반대로 실용적 안정형, 소극적 비합리형의 주부의 순으로 식단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50대 이상의 주부가 실용적 안정형과 소극적 비합리형에 30% 이상씩 분포되어 있어 연령이 높은 주부 집단은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구매계획은 진보적 활동형이 식품품목을 작성한 것만 구입했고(37.0%), 직접가서 사고 싶은 것을 때마다 구입하는 경우는 실용적 안정형의 주부가 가장 많았다(33.3%).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생활 관리에 있어서 진보적 활동형의 주부가 식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식단을 계획하며, 식품구매계획 등 비교적 합리적으로 식생활을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실용적 안정형, 소극적 비합리형의 주부는 식생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며, 식품을 구입할 때도 계획없이 그때그때 사고 싶은 것을 구입하는 등, 식생활 관리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소극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적 향유형의 주부는 식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식단을 계획하나, 식품의 구매계획에서 일관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식생활 관리에 있어서 합리적인 면과 비합리적인 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집단에 속한 주부의 학력이 다른 집단의 주부에 비하여 낮으며 남편의 직업은 주로 서비스업이나 농·축산업이어서 가족의 수입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도 관련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는 식단계

획, 식생활비 예산, 식품목록 작성 등의 식생활 관리면에서 보다 계획적이라고 한 연구 결과(김혜경 1987, 유영상 1980)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계획적인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된다.

(2) 외식

외식에 관한 부분은 외식 횟수, 외식 이유, 외식의 종류, 외식 장소, 외식 비용 등으로 구성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본 결과 <표 10>과 같다.

한달 평균 외식 횟수가 3번 이하인 경우는 라이프스타일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달에 4번 이상 외식을 하는 주부는 진보적 활동형이 가장 많았고, 현대적 향유형이 가장 적다(3.4%). 이것은 가족의 수입과 주부의 교육정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외식행동(모수미 1986)과 도시 주부의 외식 횟수(손경희 1988)는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의 횟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외식을 하는 이유는 실용적 안정형의 경우는 쇼핑하러 갔다가 우연히(46.4%), 또는 접대할 손님이 있을 때(42.9%) 외식을 한다고 하였으며, 진보적 활동형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하는 (33.8%) 경우가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실용적 안정형은 식생활 관리면에서도 계획성이 적었던 것같이 외식행동에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진보적 활동형은 가족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의 이유로서 '친구와 만나서'와 '가족과 함께'라고 응답한 경우는 라이프스타일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과, 외식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는 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외식은 식생활의 사교화와 레저화 된다고 보고한(모수미, 1986)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외식을 하게 되는 이유중 가장 낮았던 것은 현대적 향유형에서는 '접대할 손님이 와서'와 소극적 비합리형에서는 '쇼핑하러 갔다가'이었는데 이것은 각각 가족의 수입이 낮고, 주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

〈표 10〉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외식에 관한 변인들

항 목	내 용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형	실용적 안정형	진보적 활동형	%	X ²
외식 횟수 (한달)	① 3번 이하 ② 4~7번 이하 ③ 8번 이상	22.6 13.4 4.5	23.5 26.9 22.7	26.5 23.9 31.8	27.4 35.8 40.9	100 100 100	7.82
외식 이유	① 친구와 만나서(동창회, 계모임) ② 쇼핑하러 갔다가 ③ 접대할 손님이 와서 ④ 가족과 함께	20.0 21.4 7.1 21.4	27.5 7.1 21.4 22.7	27.5 46.4 42.9 22.1	25.0 25.0 28.6 33.8	100 100 100 100	13.96
가족과 함께 외 식하는 이유	① 가족원의 특별한 일을 기념 ② 가족간의 화목을 위하여 ③ 맛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 ④ 음식하기가 귀찮고, 가사일 에서 벗어나기 위해	17.4 26.8 14.3 6.9	28.3 19.7 23.8 41.4	25.0 18.5 9.5 34.5	29.3 35.0 52.4 17.2	100 100 100 100	20.96*
외식 종류	① 한 식 ② 중국식 ③ 양 식 ④ 일 식 ⑤ 기 타	22.7 17.0 17.0 14.3 17.4	23.9 37.7 17.0 23.8 32.6	26.4 28.3 25.0 9.5 26.1	27.0 17.0 40.9 52.4 23.9	100 100 100 100 100	21.84*
외식 장소	① 중심가의 유명한 곳 ②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곳 ③ 교외의 조용한 곳 ④ 일반 대중 음식점 ⑤ 간이식당(fast food) ⑥ 집으로 배달 ⑦ 기 타	25.0 16.0 47.1 20.2 * 28.6 16.7	25.0 25.1 17.6 26.0 28.6 42.9 33.3	31.8 20.9 5.9 28.8 28.6 28.6 33.3	18.2 38.0 29.4 25.0 42.9 * 16.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9.84*
외식 비용 (한달)	① 4만원 미만 ② 4~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24.6 14.1 11.1	22.8 31.3 *	26.3 21.2 33.3	26.3 33.3 56.6	100 100 100	15.23*

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과 외식을 하는 이유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그림 1) 진보적 활동형과 현대적 향유형은 가족간의 화목이나 가족원의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용적 안정형은 맛있는 음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소극적 비합리형은 음식하

기가 귀찮거나 가사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외식의 종류, 외식 장소, 외식에 드는 비용은 모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그림 1) 외식의 종류는, 한식은 모든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주부에게서 비슷하였고, 중국식을 선호하는 주부

는 소극적 비합리형이 가장 많았으며(37.7%), 양식(40.9%)과 일식(52.4%)을 좋아하는 주부는 진보적 활동형이 가장 많았다. 외식에 이용되는 장소는 진보적 활동형이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나(38.0%)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이 식당(fast food 등)을 이용하는 경우(42.9%)가 많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소극적 비합리형은 시간이 없거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집으로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았다(42.9%). 실용적 안정형은 일반 대중음식점(28.8%), 간이 식당(28.6%), 집으로 배달(28.6%)을 주로 이용하며, 현대적 향유형은 교외의 조용한 곳(47.1%)을 찾는 경향이 많았다. 외식에 드는 비용은 4만원 미만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4~20만원 미만에서는 진보적 활동형(33.3%)과 소극적 비합리형(31.3%)이 많았고, 20만원 이상에서는 진보적 활동형(55.6%)과 실용적 안정형(33.3%)이 많았고, 현대적 향유형이 가장 적었다(11.1%).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외식에 관한 변인들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충실한 생활태도를 가진 진보적 활동형의 주부는 가족원의 화목을 위하여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드는 비용도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대적 향유형의 주부는 외식에

드는 비용이나 외식 횟수는 적었으나 외식장소는 가사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보다는 즐기거나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집단의 주부보다 뚜렷하다. 또한 가계운영이 비합리적이고 가정생활에도 무관심한 편인 소극적 비합리형의 주부는 가족의 수입, 학력, 주부의 취업정도도 높았고 이 형의 주부는 가사노동이 귀찮다는 이유에서 손쉽게 집으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중국음식 등을 선호하고(37.7%) 이에 따르는 비용도 많았다. 또한 실용적 안정형의 주부들은 자신이나 가족보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중음식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겸약한 생활태도를 반영시켜 주었다.

(3) 편이 식품

편이 식품에 관한 부분에서는 편이 식품에 대한 인식정도, 편이 식품의 구입정도, 식품 구입행동 등을 알아 보았다.

편이 식품에 대한 주부의 인식정도를 Likert형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그림 1)와 같다. 조리가 간편하다는 4.1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시간이 절약된다는 4.13으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건강에 좋다는 2.0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편이 식품의 인식정도는(표 11)과 같다.

편이식품의 인식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2	3	4	5
① 좋아 한다	* 2.71				
② 맛있다	* 2.86				
③ 건강에 좋다	* 2.07				
④ 영양가가 높다	* 2.47				
⑤ 가격이 비싸다	* 3.66				
⑥ 조리가 간편하다	* 4.16				
⑦ 위생적이다	* 3.03				
⑧ 시간이 절약된다	* 4.13				
⑨ 자주 먹는다	* 2.71				
⑩ 사회경제 수준을 나타낸다	* 2.70				

<그림 1> 편이 식품에 대한 인식 정도

〈표 11〉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편이 식품의 인식정도

편이 식품의 인식 정도	현대적	소극적	실용적	진보적	F-Value
	향유형	비합리형	안정형	활동형	
① 좋아 한다	2.35	2.80	2.79	2.79	4.49**
② 맛있다	2.70	2.82	2.96	2.93	2.74
③ 건강에 좋다	1.98	2.16	2.13	2.00	1.23
④ 영양가가 높다	2.35	2.46	2.50	2.53	0.66
⑤ 가격이 비싸다	3.67	3.60	3.54	3.81	1.69
⑥ 조리가 간편하다	4.19	4.08	4.09	4.27	1.48
⑦ 위생적이다	2.95	2.95	3.10	3.09	0.71
⑧ 시간이 절약된다	4.09	4.03	4.06	4.30	2.23
⑨ 자주 먹는다	2.54	2.62	2.88	2.75	2.20
⑩ 사회 경제적 수준을 나타낸다	2.75	2.39	2.89	2.79	4.83**

〈표 12〉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편이 식품의 구입 정도

편이 식품	종 류	현대적	소극적	실용적	진보적	F-Value
		향유형	비합리형	안정형	활동형	
조미료	소오스류: 마요네즈, 드레싱 등	3.44	3.47	3.30	3.59	1.78
	화학 조미료	3.35	3.28	3.54	3.23	1.42
	양념류: 김치, 불고기, 구이류 등	2.31	2.16	2.24	2.25	0.23
가 공	식품: 소세지, 햄, 어묵, 맛살, 바베큐 등	3.76	3.49	3.04	3.69	2.36
인스턴	라면류	3.78	3.81	3.90	3.71	0.71
트식품	스프 및 곡류: 오토밀, 즉석카레, 죽	2.48	2.85	2.80	3.09	5.09**
병·통 조 림	잼, 과일, 채소(완두콩, 깻잎)	2.45	2.66	2.90	2.85	2.70*
	고등어 참치 등	2.83	2.89	3.11	2.90	1.17
냉동 식품	치킨가스, 돈가스, 비후가스 등	2.15	2.31	2.56	2.59	3.14*
	만두류, 칼국수, 만두피 등	2.95	2.95	3.11	3.21	1.49
	피자, 피자파이, 고로끼 등	1.71	2.27	2.08	2.39	6.78***
	양념불고기, 매운탕, 찌개류	1.71	1.94	2.02	2.02	1.81
저장 발효 식품	고추장, 된장 등	1.77	1.94	2.01	1.96	0.72
	간장류	3.25	3.34	3.15	3.37	0.64
	짜아찌류(밀반찬)	1.97	2.33	2.31	2.41	2.65*
	젓갈류	3.14	3.23	2.99	3.21	1.06
	김치류	1.31	1.41	1.41	1.41	0.29
완전 식품	맛김, 생선전, 부침개 등	2.22	2.61	2.89	2.59	4.87**
	일인용 포장 반찬류	1.73	1.84	1.77	1.82	0.19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편이 식품의 인식정도는 '편이 식품을 좋아한다'와 '편이 식품은 사회 경제적 수준을 나타낸다'의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라이프스타일에 관계없이 '시간이 절약된다', '조리가 간편하다'는 점에서는 편이 식품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았으며, '건강에 좋다'에 대해

서는 편이 식품에 대한 인식점수가 낮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편이 식품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한 보고(이윤자 1986, 김미향 1988)와 영양이나 가격면에서는 주부들의 호응이 적다고 보고한(김혜경, 1987)것과 같다.

현대적 향유형은 편이 식품을 좋아 한다, 맛있다, 건강에 좋다, 영양가가 높다, 위생적이다. 자주 먹는다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비해 현대적 향유형의 주부들이 편이 식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편이 식품 구입정도는 <표 12>와 같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관계없이 주부들이 가장 자주 구입하는 편이 식품은 가공식품(라면류, 육류등)과 조미료류(소오스등) 등이었고, 대체로 구입하지 않는 편이 식품은 포장반찬류와 저장발효식품류(김치, 고추장, 된장) 그리고 양념이 다된 냉동식품 등이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편이 식품의 구입정도는 스프 및 곡류 인스턴트식품, 쟈종류의 병, 통조림, 돈가스, 피자 등의 냉동식품, 짬짜리류의 밀반찬, 맛김, 생선전 등의 완전식품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현대적 향유형에서는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비교해서 편이 식품의 구입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의 수입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았기 때문이라 생각되는 반면에 실용적 안정형과 진보

적 활동형은 비교적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진보적 활동형의 주부가 인스턴트식품중 스프 및 곡류, 오트밀, 즉석카레, 죽, 냉동식품 중 치킨가스, 돈가스, 비후가스, 피자, 피자파이, 고로케 및 밀반찬의 구입을 자주 했던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이 집단의 주부는 연령이 낮고 교육정도는 높으며 경제적 수준은 높아 가공, 냉동된 서구음식의 선택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용적 안정형의 주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의 주부들에 비해 맛김, 생선전, 부침개 등을 자주 구입하는 경향이었던 것은 이 집단의 주부는 교육정도는 낮고 결혼지속기간은 가장 길었으며 연령은 많은 집단으로 가공식품보다는 우리의 전통음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품구입행동은 <표 13>과 같다.

식품구입시 식품표시사항을 확인하는가? 라는 항목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진보적 활동형은 주로 품질표시 사항이 정확하면 안심하고 구입한다. 제조업체 별로 가려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실용적 안정형은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불량식품을 구입했을 때에도 진보적 활동형의 주부는 식품회사의 자체 상담실이나 고발센터에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구입행동을 보였으며, 실용적 안정형의 주부는 교환한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현대적 향

<표 13>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편이 식품 구입 행동

식품 구입 행동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형	실용적 안정형	진보적 활동형	%	X ²
식품 구입시 식품 표시 사항을 확인합니까?						
① 품질 표시 사항이 정확하면 구입	22.4	24.6	24.3	28.8	100	12.7*
② 제조업체별로 가려서 구별 구입	20.5	28.8	20.5	30.1	100	
③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구입	16.4	18.2	45.5	20.0	100	
불량 식품을 구입했을 때						
① 교환한다	21.3	25.1	27.2	26.4	100	5.63
② 그냥 버린다	23.7	22.0	18.6	35.6	100	
③ 고발 센터에 고발한다	12.5	25.0	25.0	37.5	100	
④ 식품회사의 자체 상담실로 연락한다	7.7	23.1	30.8	38.5	100	

〈표 14〉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시기 및 절식

시식 및 절식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형	실용적 안정형	진보적 활동형	%	X ²
설 날	지낸다	21.8	23.7	26.0	28.6	100	4.67
	안지낸다	*	31.3	37.5	31.3	100	
정월 대보름	지낸다	19.8	24.7	25.7	29.9	100	5.55
	안지낸다	28.9	22.2	33.3	15.6	100	
추 석	지낸다	19.8	24.1	26.6	29.5	100	3.09
	안지낸다	27.5	27.5	27.5	17.5	100	
동 지	지낸다	19.7	27.2	24.9	28.2	100	5.74
	안지낸다	22.9	16.8	30.5	29.8	100	

유형과 소극적 비합리형의 경우는 식품회사에 자체 상담하거나 고발 센터에 고발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구입태도를 보였다.

(4) 시식 및 절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시식 및 절식은 〈표 14〉와 같다.

시식 및 절식을 지키고 있는 주부는 진보적 활동형에서 가장 많은 반면 현대적 향유형에서는 가장 적었다. 또한 시식 및 절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실용적 안정형의 주부가 가장 많았다. 이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그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로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중 진보적 활동형의 성향을 지닌 주부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대적 향유형의 주부는 전통을 보존하려는 의식도 없이 단지 자기 자신의 생활을 편하게만 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도시가정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라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고 또한 각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생활 양식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한 결과 『현대적 향유형』,

『소극적 비합리형』, 『실용적 안정형』, 그리고 『진보적 활동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현대적 향유형은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 편이나, 쉽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형으로 연령이 30대 이하 혹은 50대인 집단에 많고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다.

소극적 비합리형은 주관어 없이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유형으로서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많다.

실용적 안정형은 실질적이고 보수적이며 개인적 사고보다는 가족위주로 행동하며 진보적 개방성이 부족한 편이다. 학력과 소득이 중간이고, 연령이 중년이상인 주부들이 이 집단에 속한다.

진보적 활동형은 자아실현도가 높고 민주적, 사회적 의식이 높고 긍정적이며 활동적 특성을 갖는다. 대체로 연령이 적고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이 유형에 속한다.

라이프스타일을 식생활 양식과 관련지어 보면 식생활 관리면에서는 진보적 활동형의 주부는 비교적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용적 안정형, 소극적 비합리형은 계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의 경우는 진보적 활동형의 주부는 가족을 위주로 하고, 양식과 일식 등 비교적 고가의 외식을 하며 따라서 비용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 외식하는 이유로는 가사일에서 벗어나고 싶고, 귀찮아서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소극적 비합리형에서 제

일 많이 나타나서 이런 점에 식생활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편이식품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에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조리가 간편해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된다는 점수가 매우 높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식품은 소오스류, 육가공품, 라면류, 간장류 등이고 김치류, 일회용 포장반찬 등의 이용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시식과 절식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빈도로 보면 진보적 활동형이 비교적 시식 및 절식을 지내는 편이고, 현대적 향유형에 속한 집단은 시식, 절식을 지내는 사람들이 절반이 못되는 정도로 저조하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가정의 식생활 양식은 매우 다양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산업의 발달과 외식산업의 팽창으로 식품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가정의 가치, 관심, 태도, 사고, 행동 등의 결과로서 라이프스타일로 나타나게 됨을 볼 수 있다.

식생활 면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현재의 편이식품은 주로 구미식이며, 한국의 전통적 음식은 조리과정이 복잡하여 오히려 완제품의 상품을 이용하거나 외식을 통해서 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급변하는 사회의 도시가정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은 가정관리행동과 식생활 관리를 관련지어 조명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본 연구가 앞으로의 가정관리 연구와 식생활 연구에 의미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가정관리 연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제 생활과 연관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강이주(1984),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미(1986),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미리(1984), “맛벌이 가정과 일반가정의 식생활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3(1), pp.107-116.
- 4) 김미향(1988), “도시주부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pp.69-78.
- 5) 김미향, 한재숙(1988),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6(1), pp.109-122.
- 6) 김화영, 정순자(1985), “주부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pp.101-108.
- 7) 김혜경(1987), “주부들의 영양교육을 위한 사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2), pp.55-68.
- 8) 모수미(1986),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2), pp.120-128.
- 9) ——(1988), “Fast Food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3), pp.295-309.
- 10) 손경희, 황혜선(1988), “지역에 따른 섭식태도 및 영양섭취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1), pp.62-71.
- 11) 송용섭(1982) 「현대 소비자 행동론」서울. 박영사, p.160.
- 12) 심재엽(1983),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결정요인에 관한 다변량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오상락(1981), 현대경계논총 9월호. p.89.
- 14) 오은숙(1989), “서울시내 여자고등학생들의 식생활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유양진(1982),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통한 시장세분화 서울지역 아파트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유영상(1980), “식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1), pp.53-66.
- 17) 이서래(1984), 「식품과 소비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8) 이운자(1986), 식품과학, 19(4).
- 19) 이차욱(1983),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임정빈, 박선영(1989),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7),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 21) _____, 임혜경(1988),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 22) 한귀석(1983), “한국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행동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村田昭治, 井關利明, 川勝久(1979), 「ライフスタイル全書:理論, 技法, 應用」, 東京:グイヤモント社.
- 24) Berkman, H.W. and Gilson, C.C.(1978), *Consumer Behavior Concept and Strategies*, Encino:Dickerson Publishing Co.
- 25) Engel, J.F., Kollat, D.T., and Blackwell, R.D. (1968), *Consumer Behavior*,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26) Fitzsimmons, C. and Williams, F.(1974), *The Family Economy: Nature and Management of Resources*, Ann Arbor:Edward Brothers.
- 27)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1981),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3rd ed., Englewood Cliffs:Prentice Hall, Inc.
- 28) Levy, S.J.(1963), *Symbolism and Life Style*, 村田治外 재인용.
- 29) Moore, D.G.(1963), “Life Style in Mobile Suburbia”, Greyer, S.A.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 Robert, M.L. and Wortzel, L.H.(1979), “New Life-Style Determinants of Women’s Food Shopping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Summer 1979.
- 30) Wells, William D.(1974),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Definitions, Uses and Problems”, *Life Style and Psychographies*,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317-320.